韓日 '불교문화교류대회' 개최

고려팔만대장경 역사 고찰·성지순례 참여 등

제28차 한 · 일불교문화교류대회(대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가 6월 26~28일 합천 해인사와 대구 인터불고호텔,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린다.

한일불교문화 교류대회는 26일 오후 6시 환영만찬에 이어 27일 오전 8시 30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고려팔만대장경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주제로 개최된다. 세미나에는 한국측에서 종림 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일본측에서 송영지해(松永知海) 스님(일본불교대학 인문학과 교수)이 주제발표한다.

2부 세계평화기원법회는 27일 오후 1시 해인사에서 봉행된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인경 및 법계도 체험, 범주 스님 달마도 시연 등의 문화행사에도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28일부터 성지순례에 참여한다. 성지순례지는 부여 불교전래사은비와 개태사 등. 인근사찰을 방문한 뒤 조계사를 참배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장면.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조계종조 도의 국사 다례재가 6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다례재에는 원로의원 보성, 활안, 동춘, 혜정, 혜승, 정무 스님 등이 참석했다.

종정 법전 스님은 보성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국사께서는 법계(法界)에 충만한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자오자증(自悟自證)하는 길을 열었다. 진리의 본체는 두두물물(頭頭物物)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법어를 내렸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강의 및 법문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조계종 3급 승가고시 지나친 응시자격 확대
'승가교육 체계' 붕괴 우려

승가고시법 시행령 개정안 점검

6월 19일 열린 조계종 종무회의에서 통과된 '승가고시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승가고시법 기본 취지뿐만 아니라 승가교육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보완책을 점검했다.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개정안에 따르면 9명의 고시위원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이전에는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무원장이 위촉했다.

개정안은 또 제6조 2를 신설해 3급 승가고시의 구체적인 응시자격을 정했다. 승가고시법 제9조 제3호 가목에서는 선원에서 4안거를 이수한 뒤 △전문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 전문과정 2년 졸업 △전문선원에서 4안거 이상 성만 △석사 학위 취득 △교육원장이 인정한 특수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특수교육을 이수 △교육원장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나목에서는 △종립 승가대학원을 졸업한 자 △특수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공식기관이나 기능 보유자에게 연구나 기능연마를 3년 이상 계속한 자 △전문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에서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을 졸업한 자도 3급 승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목에서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및 말사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어느 하나의 소임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재직하면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어느 하나의 소임이란 △군승 등 총무원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상근 임명직 △종단, 교구본사, 말사, 종립학교에서 설립한 법인격 단체의 상근 임명직(교법사 포함) △포교원장이 인정한 포교단체, 신도단체의 상근 임명직 △지방 종무기관(교구본사와 말사)에서 임명한 상근 임명직(교육교역자, 총무, 기획, 재무, 포교, 교무, 사회, 호법, 회계, 원주, 노전(부전, 기도법사), 사보편집장, 상임포교사(상근직 지도법사), 종무(과장) 소임 등) 등을 일컫는다.

가, 나, 다목 응시 자격자는 해당직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만 인정된다. 또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승려 자질 향상 대책 보완 필요
대중 '방함록' 작성도 고려할 만

▲무엇이 문제인가?=개정된 승가고시법 시행령은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응시자격을 너무 확대해 3급 승가고시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말사에서 노전만 4년 이상해도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럴 경우 승가고시법 기본목적 중 하나인 '승려 자질 향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승가고시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종헌 제12조에 의해 교육 및 법계승서에 따른 고시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해 승려의 자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전 소임 등이 승려 자질 향상과 관계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은사와 제자, 사형과 사제 사이에서 엄격한 잣대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증빙서류가 가짜라고 해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시행될 경우 선원에도 안 가본 스님이 일선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좌도 둘 수 있다. 간화선을 종지종풍으로 하고 있는 조계종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여기에 구족계를 수지한 뒤 다시 강원이나 동국대,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스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보완책은?=조계종은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 때부터 승려 자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이는 승려 자질을 향상해야 다종교 사회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선 첫째, 다목 중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3급 승가고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둘째, 일반 대중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방함록〉을 작성해 DB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단 이 방안은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

셋째, 3급 승가고시 시험을 강화해 일종의 거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은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본말사는 해당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비하고 이를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총무원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행령을 따로 만들어 대중방함록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해외 사이트' 운영키로

태고종은 6월 2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종무원 회의실에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 · 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열고 해외포교활동 강화를 위해 종단 해외사이트(www.taego.at)를 운영키로 결의했다.

또 총무원과 종무원간에 유기적 협조 관계 강화를 위해 시 · 도교구 종무원별 순방을 실시하고, 중앙승가전문강원 운영과 관련 월요일 오후 6시, 화요일 오후 2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본말사 주지연수 현장에 민원실

조계종 총무원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본말사 주지연수에서 현장 민원실을 시범 운영한다.

민원실에서는 승적기재사항 변경이나 사찰등록사항 변경 및 정정에 대해 상담하고, 승적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또 사찰 재산과 관련한 민원도 상담한다. 민원실에는 총무국장, 팀장, 사찰교무팀원 2명이 상주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 조계종 창종 선포법회

한국불교 조계종이 7월 7일 오전 10시 인천시 오류동 보현선원에서 창종선포 대법회를 개최한다.

초대종정은 6월 18일 열반 100재를 지낸 향엄당 설산 스님. 한국불교 조계종은 창종선포후 제2대 종정을 추대할 방침이다.

초대 총무원장 보현 스님(보현선원장,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이사장)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로서 제도권 내에서 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며 "창종후 새로운 불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현 스님은 1961년 문경 대승사에서 의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송광사 강원 사교과 대교과를 졸업하고, 마곡사 신흥사 대흥사 동화사 교무국장과 조계종 9.10대 중앙종회의원, 봉정암 홍련암 유가사 주지를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물經세상鏡 B포교사의 다짐

B포교사는 마음이 허전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문계고교 교사인 B포교사는 학생들이 기말고사 준비에 여념 없는 동안 '또 한 학기가 지나 간다'는 사실에 가슴 한 켠의 공허함을 느낀다.

5년 전 그는 학교에 불교 동아리를 만들었었다.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한 불교 동아리였지만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50여 명이 함께 법회를 보고 사찰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는 등 신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힘은 오래 가지 않았다.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데 속수무책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읍 단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시간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니다. 입시에 대한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의 걱정과 조바심도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다.

여기에다 교내 활동을 위한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불교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B포교사 나름대로 '악전고투' 했지만, 떠나가는 학생들의 마음을 잡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B포교사는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성을 맑게 해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불교 동아리야말로 최고가 될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과 청소년 포교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체계가 전무한 현실에서 불교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묘안은 아무리 궁리해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동아리가 없어지는 걸 지켜볼 순 없다." B포교사는 우선 학교에서 맡은 보직을 내놓을 생각이다. 학급의 담임을 맡아 학생들과 한 겹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날 생각이다. 또 동료 포교사들에게 학교에서의 전법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물어 볼 생각이다.

여름 방학동안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새 학기에는 불교 동아리에서 신나는 목탁소리가 나도록 할 각오다. 임연태 기자

봉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창종 대법회 축

초대종정 향엄 설산 대종사

불교가 있는 곳에는 자유와 평화요 행복입니다.
불교가 새롭게 거듭나고자 창종대법회를 통해 인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성스럽게 시작합니다.
대덕 큰 스님들과 지역 유지분들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 역사적인 21C창종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자리를 빛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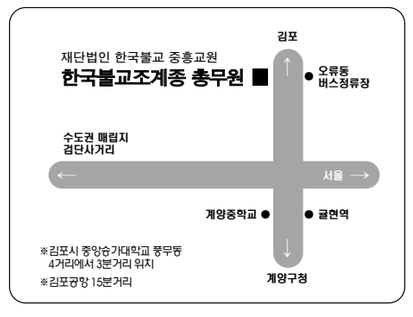
▣일시 : 불기 2551년 7월 7일 (음 5.23일) 토요일 오전10시
▣장소 :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문의 : 전화 032)518-1588, 032)554-1080 전송 032)554-1006

총무원장 보현
총무원 부원장 현철
중앙종회의장 덕산
중앙종회수석부의장 토불
포교원장 오봉
교육원장 보명
호계원장 지방
문화원장 효성
총무부장 범해
교무부장 정담
재무부장 진송
사회부장 윤봉
호법부장 도정
감찰부장 진경
문화부장 상운

서울교구 총무원 직할

부산교구 종무원장 정담
대구교구 종무원장 덕운
대전교구 종무원장 도정
인천교구 종무원장 묵담
강원교구 종무원장 동법
제주교구 종무원장 만우
해외교구 종무원장 짐바
경기교구 종무원장 범해
경남교구 종무원장 윤봉
경북교구 종무원장 토불
전남교구 종무원장 일조
전북교구 종무원장 만공
충남교구 종무원장 형주
충북교구 종무원장 경담

증명 각 종단 종정 예하
동성큰스님, 영공큰스님
경우큰스님, 우각큰스님
봉주큰스님, 법해큰스님
가산큰스님



재단법인 한국불교 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서 보 현 합장